

계곡·하천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광양시, 휴가철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종량제봉투 지참 당부
적발 시 최대 100만원...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은 무단투기 간주

광양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계곡과 하천 등 피서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과 종량제봉투 지참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계곡 인근에는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판매소가 거의 없어, 피서객들이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행위로,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광양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용 자동상차용기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투기하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간주하며, 간편함을 이유로 비닐이나 쇼핑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페트병, 캔 등 재활용품은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담아야 하며,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시는 여름철 피서지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근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연을 즐기려 찾는 계곡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면, 그 불편과 부담은 결국 시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곡 방문 시 돗자리나 음식처럼 종량제봉투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품을 기억해 주시고,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화엄 자연밥상’ 남도 음식 거리 최종 선정

내년까지 10억원 투입 조형물·벽화 조성 등 환경 개선

구례군 ‘구례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가 지난 6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전남도 주관 2025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구례군은 구례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를 마산면 화엄사가 일대에 40년 전통의 산채정식·버섯전골을 주 메뉴로 특화된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노후된 화엄사가 지구를 요즘 트렌드인 치유와 사색의 공간으로 만들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들

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되살리고자 한다.

올해 하반기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상징 조형물과 벽화조성, 경관조성, 간판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 내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찾는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과 연

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인근 체험형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는 단순한 식도락을 넘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구례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후 비건, 치유, 테라피 푸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힘든 방제 작업 현장 ‘4-H 드론 방제단’ 출동~

보성군, 고령 농업인 대상
1ha 미만 경작자 농작업 서비스
청년 농업인에 드론 교육 지원

보성군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청년농업인 4-H 드론 방제단을 공식 출범(사진)하고, 고령 농업인(75세 이상, 1ha 미만 경작자)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출범한 드론 방제단은 오는 18일 보성군 4-H연합회 소속 청년농업인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작업을 7. 14. ~ 7. 18.까지 지역 농민상담소에서 접수하면 기본 방제 기간에 재능기부(약제비 경작자 부담) 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지난 3년간 청년농업인 단체에 드론 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을 지속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들이 실제 농촌 현장에서 영농 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곽종화 방제단 대표는 “오늘 출범하는 방제단은 농촌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청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현



장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농촌은 고령 농업인들이 영농 작업 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

며 “청년들이 고령 농업인 영농 대행 서비스를 통해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여수제일병원 ‘퇴원환자 일상 복귀’ 협력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방문 의료·주거 지원 등 통합

여수시가 지난 10일 여수제일병원과 ‘퇴원환자 재가 복귀 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원 환자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재입원 및 시설 입소 예방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여수제일병원은 통합 안내 창구 역할을 맡아 돌봄 필요도가 높은 퇴원(예정)자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시에 대상자를 연계하고, 여수시는 연계된 퇴원(예정)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추진한다.

협약 기간은 2025년 7월10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방문 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길 여수제일병원 병원장은 “여수시와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이 퇴원 후에도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여수제일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여수전남병원, 여수중앙병원, 여수한국병원에 이어 여수제일병원까지 총 4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김창환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전북 ‘치유 농업’ 배우고 왔어요”

곡성 농민 등 20여명, 순창 트레팜·김제 꽃다비팜 등 견학

곡성군이 지난 11일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원과 치유농업에 관심있는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장 선진지 견학을 시행했다.〈사진〉 이번 견학은 치유농업협의회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관내 치유농업 확산과 치유농장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치유농업사가 운영하는 전북 순창군 트레팜 치유농장을 첫 일정으로 치유농장 운영 기법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수강하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전북 김제시 꽃다비팜을 방문하여 치유농장 현장견학과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실습수업을 진행했다.

순창군 트레팜과 김제 꽃다비팜은 6차산업 인증, 농촌교육농장 인증 등을 받아 지역 복지관,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농가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과 도시민이 교류하는 등 선진 치유농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교육생들이 치유프로그램 개발이나 치유농장 운영 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자신의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곡성군에도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및 치유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유농업은 주민들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보성군 ‘취약지 환경 개선’ 8년 연속 선정

조성면 덕촌마을 20억 5000만원 투입 소방시설·주차장 조성 등

보성군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조성면 매현리 덕촌마을이 최종 선정돼, 8년 연속 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는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조성면 덕촌마을에는 ▲붕괴 위험 응벽 정비 ▲이동식 소방시설 설치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어르신 전용휠체어 전용 주차장 조

성 ▲주택 정비 등 총 20억 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2015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새마을)’의 별교읍 봉림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개 마을이 선정돼 이 중 7개 지구는 준공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지구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연속 선정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정주 여건 개선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수제맥주 먹거리 창업 모델 발굴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 5개팀 선발...메뉴 개발 등 전 과정 맞춤 지원

고흥군이 지난 11일 ‘고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 2차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총 5개 창업팀을 최종 선정, 수제맥주와 어울리는 지역 먹거리 창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고흥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로컬 창업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됐다.

지난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챌린지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2개 팀을 선정한 뒤,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기념품 및 판매상품 분야 1팀 ▲수제맥주와 조화를 이루는 음식 개발 분야 4팀 등 총 5개 팀이 최종 선발되었다.

최종 선정된 팀은 고흥읍 일원에 조성된 도시재

생 거점공간과 수제맥주 제조시설(브루어리)을 활용해 창업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 고흥군은 이들에게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브랜드 및 상품 기획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창업 실무교육 및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 창업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는 고흥의 우주항공 산업, 전통시장,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우수 팀의 제품은 브루어리 내 시범 판매와 지역축제 연계를 통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아이들 상상의 세계에 색칠하다

순천 기적의도서관 16일부터 예술 창작 프로그램...초등생 12명 모집

순천시가 오는 16일부터 11월5일까지 기적의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적을 그리는 화가’를 운영한다.

‘기적을 그리는 화가’는 2020년부터 이어진 기적의도서관 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동서양의 근·현대 미술 및 고전 화가의 표현 기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 도서관 내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에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 3~4학년 12명을 대상으로 하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순천의 풍경을 팝

아트 기법과 아크릴화를 활용한 창작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여 신청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접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기적의도서관(061-749-8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12명의 자화상 작품은 7월 중 도서관 내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며, 도서관 운영 시간 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